

월화 제패 문제없다!

새 월화 〈피고인〉

1월 23일 첫 방송



〈낭만닥터 김사부〉의 뜨거운 인기를 이어갈 새 월화드라마 〈피고인〉(극본: 최수진, 최창환, 연출: 조영광)이 1월 23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피고인〉은 딸과 아내를 죽인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검사 박정우가 잃어버린 4개월의 시간을 기억해내기 위해 써 내려 가는 투쟁일지이자, 세상 모두를 속인 충격적인 악인 차민호를 상대로 벌이는 강렬한 복수 이야기다.

절정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지성이 박정우 역을 맡아,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누명을 쓴 검사이자 사형수를 연기한다. 박정우는 서울 중앙지검 형사3부의 에이스이자 범죄 앞에서는 무관용, 엄정 처벌이 소신인 원칙주의 검사다. 하지만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감방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죽였단다. 박정우가 잃어버린 4개월의 기

역을 되찾아가는 여정은 거대 권력에 대항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기준은 쌍둥이 형제인 차명그룹의 반듯한 장남 차선호와 사고뭉치 차남 차민호 역을 맡아, 지성과 치열한 연기 대결을 펼친다. 검사 박정우에게 백전백패를 거듭하다가, 이제는 피고인이 된 박정우를 위해 싸워야 하는 국선 변호사 서은혜 역은 권유리가 맡았다. 정우와 15년 지기 절친이면서 정우에게 묘한 열등감을 느끼는 검사 강준혁 역은 오창석이 맡고, 그 밖에도 엄현경, 김민석, 우현, 오대환 등이 출연한다.

츰츰히 짜인 극본으로 선과 악의 극명한 대결을 보여줄 〈피고인〉은 상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국내외 관심 초집중!

새 수목 〈사임당, 빛의 일기〉

1월 26일 첫 방송



이영애의 13년 만의 복귀작으로 촬영 전부터 화제를 모은 〈사임당, 빛의 일기〉(극본: 박은령, 연출: 윤상호)가 1월 26일(목) 밤 10시, 그 베일을 벗는다. 〈사임당, 빛의 일기〉는 조선시대 사임당 신 씨의 삶을 재해석해 그의 예술혼과 불멸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다.

이영애의 상대역으로 송승헌이 출연해, 〈푸른 바다의 전설〉 이만호-전지현 커플을 능가하는 비주얼 커플이 보여줄 케미스트리에 국내외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초특급 한류스타의 만남만으로 이미 아시아 14개국에 선 판매대 편성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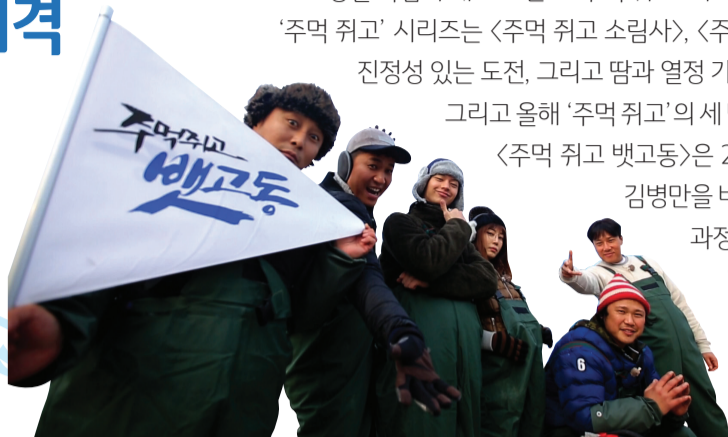
두 사람의 스타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216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100% 사전 제작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사임당, 빛의 일기〉는 한국미술사를 전공한 시간강사 서지윤(이영애 분)이 이탈리아에

서 우연히 발견한 사임당(이영애 분) 일기에 얽힌 비밀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풀어내는 로맨스 미스터리 퓨전 사극이다. 일기 속에 숨겨진 천재 화가 사임당의 위대한 삶과 '조선판 개츠비' 이겸(송승헌 분)의 불꽃 같은 이야기가 작가의 상상력으로 아름답게 그려진다. 또한, 정통사극이 아닌 퓨전사극으로 제작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오윤아가 사임당의 숙명의 라이벌 휘음당 최 씨로 출연해 역대급 악녀 연기를 선보이며, 박혜수와 양세종이 어린 시절의 사임당과 이겸을 연기한다. 사임당의 남편 이원수 역으로 윤다훈이, 휘음당의 남편 민치형 역으로 최철호가 출연하며, 그 외 김해숙, 최종환, 이경진, 김민희, 최일화 등이 출연해 한국을 대표할 새로운 형식의 사극을 써내려간다.

5개 파일럿으로 설 연휴 시청자 취향 저격



01 파란만장 김병만의 세 번째 '주먹 쥐고' 시리즈 〈주먹 쥐고 뱃고동〉

SBS 명절 특집의 대표 브랜드 '주먹 쥐고' 시리즈가 2017년 설을 맞아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주먹 쥐고' 시리즈는 〈주먹 쥐고 소림사〉, 〈주먹 쥐고 주방장〉을 통해 도전과 모험의 아이콘 김병만을 비롯한 멤버들의 진정성 있는 도전, 그리고 땀과 열정 가득한 모습을 담아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올해 '주먹 쥐고'의 세 번째 시리즈, 신개념 어류 추적 버라이어티 〈주먹 쥐고 뱃고동〉이 방송된다.

〈주먹 쥐고 뱃고동〉은 200년 전 정약전 선생이 쓴 '자산어보'를 새롭게 다시 쓰는 프로그램이다.

김병만을 비롯해 육종완, 김종민, 이상민, 육성재, 강예원이 흑산도에서 좌충우돌 연구 과정을 통해 6인 6색의 매력을 보여준다.

'주먹 쥐고' 시리즈를 연출해 온 이영준 PD는 "김병만과 김종민, 두 연예대상의 시너지가 기대 이상이다. 지난 시리즈보다 한층 더 다채롭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02 계급장 떼고 맞붙는다 〈코미디 서바이벌 희극지왕〉

코미디 버라이어티 〈코미디 서바이벌 희극지왕〉(이하 〈희극지왕〉)은 현역 코미디언들이 한자리에 모여 벌이는 유쾌한 대결이다. 코미디계의 대부 이경규가 진행을 맡고 박미선, 윤정수, 김영철, 양세형 등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이 출연해 설 연휴 안방극장에 웃음을 선사한다.

1부 '코미디포럼'에서는 예능계에 대한 전반적인 토크가 이뤄진다. 2016년 한해 대박친 프로그램과 급부상한 연예인을 집중 탐구해보고, 2017년 예능 트렌드, 주목받을 연예인 등을 예측함으로써 대한민국 예능의 나아갈 방향을 진단한다.

2부 '탄생! 희극지왕'은 코미디언들의 끼와 재치, 순발력, 기발한 아이디어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스탠딩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 퍼포먼스, 성대모사 등 출연자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로 무대를 꾸미고 심사를 통해 '희극지왕'을 뽑는다.

연출을 맡은 이양화 PD는 "버라이어티에서 맹활약 중인 선배 예능인들과 〈웃찾사〉의 후배 개그맨들이 모여 뜻 깊은 경쟁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과연 누가 희극지왕에 등극할지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03 외국인 아이돌의 좌충우돌 한글 수업 〈초등학쌤〉

〈생 리얼 수업 초등학쌤〉(이하 〈초등학쌤〉)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아이돌들이 시골의 초등학생들에게 한글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파일럿으로 시작해 현재 4개월 넘게 동 시간대 1위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의 광승영 PD가 연출을 맡아, 다시 한 번 정규 편성에 도전한다.

국민 MC 강호동이 한글 학교 학생과 선생님 간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지고, 강남, 슈퍼주니어-M 헨리, f(x) 엠버, 트와이스 모모, 세븐틴 디에잇, NCT 텐이 학생으로 출연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지만 한글 실력은 평균 6세 수준이다. 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게, 8인의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로 초빙됐다.

광승영 PD는 "〈초등학쌤〉의 가장 큰 매력은 초등학생 선생님들의 톡톡 튀는 상상력과 꾸밈없는 순수함에서 나오는 입담"이라고 전했다.

남녀노소,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어느 출연자에게나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MC 강호동의 맛깔 나는 진행은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다.



04 신개념 판타지 예능 〈천국사무소〉

〈내 생애 단 하나의 기억-천국사무소〉(제작: 씨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이하 〈천국사무소〉)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7가지 기억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판타지 예능이다.

파일럿의 주인공으로 안재욱이 출연해, 가상공간인 천국 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을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생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야기를 끌어내고 들어주는 역할인 천국사무소장은 배우 강신일이, 서기 역은 개그맨 조세호가 맡아 스토리텔링이 강화된 새로운 형식의 토크쇼를 선보인다.

데뷔 24년 차의 베테랑 배우이자 결혼 3년 차의 늦깎이 신랑이며, 두 살배기 딸 수현이의 '딸바보 아빠'로서의 안재욱의 일상이 처음으로 공개되며, 서울예대 동문 연예인들이 폭로하는 학창시절과 신인시절의 에피소드가 대방출된다. 안재욱은 몇 년 전 들이닥쳤던 불의의 사고와 생사를 넘나들었던 체험 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특유의 친화력과 입담으로 프로그램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후문이다.



05 집단지성X미스터리 추리 토크쇼 〈뜻밖의 미스터리 클럽〉

〈뜻밖의 미스터리 클럽〉은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잘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대중의 참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보는 새로운 형식의 '집단지성 X 미스터리 추리 토크쇼'다.

성시경, 김의성, 모델 한혜진, 신동, 타일러 등 5명의 'M.C.(Mystery Collector)'가 제작진으로부터 미궁에 빠진 사건, 혹은 현상에 대한 작은 단서를 받아 본인의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올린다. 이들은 다양한 경로로 네티즌과 소통하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합한 후 한 자리에 모여, 사건에 대한 추론과 시사와 인문학적 이야기가 결합된 토크를 진행해 시청자의 궁금증과 지적 호기심을 풀어주게 된다.

연출을 맡은 김규형 PD는 "누구나 쓸 수 있어 방대해지고 오히려 정확해지는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에 반영된 '집단지성'의 테마를 미스터리로 결합하는 일종의 실험"이라 밝히며 "모두가 참여해서 팩트를 찾고 함께 쓰는, 미스터리 버전의 위키피디아를 구현하는 것이 기획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의성이 1월 7일에 진행한 Facebook Live는 6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아프리카 SBS 희망학교 100개 짓기 프로젝트 5년 만에 결실!

SBS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짓기'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1월 11일(현지시각)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100번째 SBS 희망학교 '과라라 투마이니 중등학교' 완공식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탄자니아 자치령, 잔지바르 군도의 대통령 알리 모하메드 세인을 비롯해 부통령,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지역주민 300명이 참석했으며, 윤석민 SBS 희망내일위원회 위원장, 송금영 주탄자니아 대사, 정우용 KOICA 이사, 김인희 굿네이버스 부회장,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도 참석했다.

윤석민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SBS는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총 100개의 희망학교를 아프리카에 짓기로 약속했고, 이제 그 100번째 희망학교가 이곳 잔지바르 과라라에 우뚝 서게 됐다"며 "ICT 활용 시범교실과 미디어센터를 보유한 과라라 투마이니 중등학교가 잔지바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완성된 100개의 SBS 희망학교를 통해서 향후 5년간 총 10만 명의 학생이 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학교 100개 짓기 프로젝트를 완성한 SBS는 2차 5



개년 계획인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는 지어진 희망학교를 토대로 '엘리트 양성, 자립마을 발전, 졸업생 취업'에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을 통

해 학생들 스스로 자립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의 자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다.

CES 2017 관람기

“4차 산업혁명의 문이 일찍 열렸다”



작년 CES에서 느꼈던 감정이 혼돈이라면 올해는 혼돈의 장이 정리된 모습이었다. 작년의 화두는 '연결'이었고, 기업 간 합종연횡이 난무했지만, 그 결과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아한 산물도 많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차와 냉장고의 연결 등)

하지만, 올해는 모든 전시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자리를 잡았고 혁신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느낄 수 있었다. 진화와 혁신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고도화된 지능이 개입되면서' 인간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향(사용자 데이터 수집 → 습관 파악/분석 → 올바른 사용 유도)으로 향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신호탄인 "인공지능 세상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전시였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자동차였다. North Hall은 도요타, 닛산, 포드, 벤츠, 현대차 등 자동차업체들로 가득 찼다. 전시장의 중심인 Central Hall에는 삼성과 소니 등 전통적인 가전 회사들이 자리 잡았지만, 파나소닉, 인텔, 퀄컴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전시장에도 딱 하니

자동차가 한 대씩 자리 잡고 있었다. CES의 원래 뜻이 가전제품전시회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변화다.

CES가 모터쇼처럼 바뀐 이유는 '자율주행차'가 최첨단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혁신의 장이기 때문이다. 메이저 자동차업체들은 산업 경계를 넘어 자신들과는 '태생이 다른'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NVIDIA(엔비디아)가 오디오와 제휴해 자율주행차를 도로에 내놨고, 통신칩을 만들던 퀄컴은 아예 자동차 전시장에 부스를 하나 더 만들었으며, 컴퓨터 CPU를 만들던 인텔도 작년의 드론을 버리고 이번엔 BMW와 자율주행차를 내놨다.

인공지능이 가미된 자율주행차는 더 이상 운전하는 기계(Machine)가 아니라, 운전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들이 원하는 영화를 보여주는 휴식의 공간(Space)이 된다. 인공지능을 통해, 안전을 책임지는 판단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교감할 수 있는 '감성엔진'을 장착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눈길을 끈 것은 '로봇'의 대거 출현이었다. 수많은 로봇에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저마다 사람의 음성명령에 따라 일을 하는 비서나 집사역할을 수행했는데, 심지어 빨래도 했다.(앞으로 CES를 통해 로봇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더아머'의 신발이었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확산'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스포츠 회사는 이번 전시에서 '디지털 회사'로 탈바꿈을 선언하며, 꾸준히 확보해 온 10억 개의 데이터를 통해 IoT-스포츠 신제품을 선보였다. 기초연설장에서 이 회사 CEO는 자사 제품의 센서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분석을 한 후 사용자들 개인에게 올바른 습관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상품이 아니라 바른 습관 제조기를 파는 셈이다.)

이번 전시는 '연결'이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산업의 경계를 급속도로 파괴시키는 장이었다. 그 현장에서 '대중(Mass)기반 서비스'는 점점 힘을 잃고, 개인화, 세분화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산업의 틀이 이동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5G'로 인해 더 많은 연결이 더 빨리 이뤄지면,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속으로 거침없이 질주할 것이다. 부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터뷰
이 사람

<그것이 알고 싶다> 박진홍 교양3CP

“ 시청자들이 알고자 하는 진실, 알려야 하는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그알>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요즘 시청률이 고공행진이다.

‘대통령의 시크릿’ 21.3%, ‘최태민 일가는 무엇을 꿈꿨나?’ 16.1%, ‘엘시티 비밀장부는 있는가?’ 11%, ‘세월호 화물칸과 연안부두 205호’ 15.1%,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 미스터리’ 16.7%,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9.5%, ‘우병우 전 수석과 청와대 비밀노트’ 16.7%,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 13.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2002년 이후 촛불집회의 진화과정과 사회적 의미를 다뤘고, 다른 방송들은 모두 대통령과 최순실을 둘러싼 의혹들을 주제로 한 방송이었다. 시국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가 결합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알>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는데 체감하는지?

상도 많이 받았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지만 반갑고 기쁘기보다는 엄중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성원도 물론 있지만, 지금의 시국을 시청자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몰랐던 진실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만큼, 매주 방송 준비할 때마다 제작진이 갖는 부담도 상당하다.

되짚어보면, 최근 <그알>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이 시작된 계기는 10월 22일 방송된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편이 아니었나 싶다.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부터는 언론사 간에 대통령

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추적하는 보도가 경쟁적으로 이뤄졌지만, 그보다 겨우 이틀 전인 10월 22일까지만 해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공중파에서 정면으로 검증할 거라고 기대한 분들이 많지 않았다. 다행히 사건의 본질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분분했던 사인에 관한 논란도 방송을 통해 정리했다고 자평한다. 그때부터 시청자들이 더 좋게 봐주신 것 같다.

<그알>이 그동안 시사적인 이슈를 다뤘던 것이 양적으로 부족했다는 건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사건을 다루더라도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우선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온 <그알>의 제작방식을 지지해온 팬층이 많은 것도 최근의 성원으로 이어진 또 다른 배경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시청률을 보면 시청자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 같다.

강력 사건이든, 정치적 이슈든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시청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시국상황에서 시청자들은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알려야 할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언론을 비판하며,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더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 그 의문에 집중하는 것, 시청자들이 알고자 하는 진실, 알려야 하는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그알>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앞으로 <그알>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 현재의 결정이 남아있고, 그에 따른 정치 일정이 진행될 테니 시국에 관한 주제가 계속될 것이다. 1월 21일에는 천경자 미인도와 김재규 전 중정부장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정치적 이슈만을 다루진 않는다. 정교한 사건 미스터리와 사회 이슈를 다룬 힘 있는 탐사 취재물을 균형 있게 만들어 가는 게 과제다.

<그알> 제작진은 여간한 근성으로는 안 될 것 같다.

CP를 맡고 나서 가장 힘든 게 인사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알> 연출자들은 모두에게 S를 줘도 아깝지 않다. 이근별 PD는 가장 젊은 만큼 굉장한 추진력과 파이팅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섬세하고 따뜻하다. 장경주 PD는 진중하게 사안에 접근하기 때문에 늘 신뢰가 가는 반면 의외로 엉뚱하고 재밌다. 전문 래퍼이기도 한 도준우 PD는 재기 발랄하면서도 늘 악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다. 배정훈 PD는 집요하고 겁 없는 취재로 잘 알려진 훌륭한 탐사취재 PD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눈물도 많다. 류영우 PD는 빠른 판단과 현장취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집에서는 아들 바보다. 이광훈 선임PD는 동료로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고 훌륭한 연출자다. 이들의 공통점은 취재와 제작에 있어서는 지독한 사람들이지만 참 따뜻하고 착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알>의 연출자로서 가져야 할 자질이 그 두 가지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알>은 SBS의 장수 효자 프로그램이다. CP는 편하지 않을까?

<그알>의 조연출로 방송생활을 시작해서 연출, 시니어 연출을 거쳐 지금은 팀장 겸 CP를 맡고 있어서 인연이 크지만, 프로그램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봐 항상 두렵다. 연출자였을 때는 꿈속에서도 취재와 편집이 계속됐다. 연출할 때의 부담 위에 더 없어진 책임이라면 개성 강하고 역량 있는 연출자들이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큰 틀의 방향성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

<그알>은 시사교양본부 모두의 프로그램이고, 나아가 SBS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모바일 신흥 강자 ‘모비딕’, 설 연휴 지상파 공략 나선다.

론칭 6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7,500만을 돌파하며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비딕’의 대표 프로그램 <양세형의 쏘터뷰>와 <경리단길 홍사장>이 다시 한번 지상파 공략에 나선다.

지난 10월 4주간 전격 편성됐던 ‘모비딕 스페셜’은 심야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2.7%로 동 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각종 SNS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모바일-지상파’ 교차편성의 잠재력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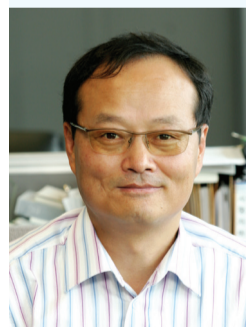
이런 반응에 힘입어, 설 연휴를 시작으로 2주간 ‘모비딕 스페셜’이 또 한 번 지상파에서 선보인다. 1월 27일(금) 24시 50분, 1월 28일(토) 24시 25분에 화제의 중심에 있는 <양세형의 쏘터뷰>가 연속 편성된다. 최근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안희정 충남지사’, 가장 핫한 이슈메이커 ‘이재명 성남시장’, 명리학자이자 평론가인 ‘강현’ 등 화려한 출연진들과 함께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아슬아슬하고 기상천외한 인터뷰가 펼쳐진다.

2월 5일(일) 24시에는 <경리단길 홍사장>이 편성된다. 첫 삽을 뜨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지난 방송분에 이어, 실제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홍석천이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완성된 건물이 드디어 공개될 예정이다.



차기 대선 유력후보 등극

이풍호·권동직 선임매니저 정년퇴임식



이풍호 선임매니저



권동직 선임매니저

1월 31일(화) 심의팀 이풍호 선임매니저와 윤리경영팀 권동직 선임매니저가 퇴임식을 한다.

이풍호 선임매니저는 예능 PD로 입사해서 교양국, 편성국, 보도국, 외주팀 등을 고루 거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특히 보도국에 있을 때는 최초의 모션 캡처링 3D 만평캐릭터 ‘나잘란’ 박사를 개발하여 <머니센스> 및 선거방송에 활용

했으며, 외주팀에서는 시트콤 <여고시절>을 제작했다. 2005~2007년 심의팀장으로 근무한 후 최근까지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열린 TV 시청자세상>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퇴직 후에는 ‘숲 치료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권동직 선임매니저는 1990년 12월 총무부로 입사한 후 홍보부, 관재부 등을 거치면서 창사 초기 행정 업무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2000년부터 사옥건설준비팀에서 일하면서 신사옥 건설에 열정을 쏟아 목동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으며, 2005년에는 보도운영팀장으로 기자들의 보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권 선임매니저는 항상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해 주위의 신망이 두터웠다.

두 사람은 2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서 내년 1월 31일자로 퇴임한다.